"창조 · 진화 재판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누가 판단해야 할까?"

■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장 홍기범 교수 기고 - ①, ❷

홍기범 교수
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장

하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무신론" 워필드 "정통기독교 신앙과 조화 가능"

프린스톤 신학대학교의 스승과 제자인 두 교수의 입장이 '배격' - '수용' 상이

생물학 연구하다보면 분명 '설계의 증거' 발견…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증거' 아닌 '신념' 고수

진화론자들은 생물학 특히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에 대하여 연구하다 보면 설계된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설계의 증거를 애써서 부정한다. 프란시스 크릭의 말은 생물학자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진화론을 떠나 설계를 인정하는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떠한 설계의 증거가 발견되어도,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지키고 사수한다. 이것은 과학도 아니며, 학문도 아니며, 단지 종교일 뿐이다.

Jowett과 Compbell이 편집한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학문 탐구자의 자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원칙(Socratic Principle)이 106쪽에 나온다. "ὅπῃ ἂν "ὅπῃ ἂν ὁ λόγος ὥσπερ πνεῦμα φέρῃ, ταύτῃ ἰτέον"

우리 말로 직역하면, "바람처럼 논리가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리로 가야만 한다"는 논리는 증거 또는 이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이 증거와 다를 경우, 증거를 따라가라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증거가 아니라 신념을 따라가는 종교인들이다.

그러면 창조-진화 재판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누가 판단해야 할까? 신학자? 담임목사? 부모?

Baker Books에서 1994년에 발간한 'What is Darwinism?' 12쪽의 영어 원문을 인용해보자.

Hodge and Warfield reached contrasting conclusions on questions of cosmology: Hodge thought that Charles Darwin's formulation of evolution was tantamount to atheism; Warfield held that a comprehensive formulation of evolution could be reconciled with an orthodox Christian faith based on an inerrant Bible.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와 워필드는 우주론의 문제에 있어 상이한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는 찰스 다윈이 공식화한 진화론은 무신론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반면, 워필드는 공식화 된 포괄적 진화론은 오류가 없는 성경에 기반한 정통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프린스톤 신학교 교수인) 찰스 하지(1797~1878)는 진화론을 배격하였지만, 그의 제자이며 (프린스톤 신학교 교수인) 벤저민 워필드(1851~1921)는 진화론을 수용했다.

창조와 진화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 찰스 하지의 결정을 따라야 할까? 벤저민 워필드를 따라야 할까?

이 결정은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자유 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찰스 템플턴(1915-2001)은 빌리 그레함과 같이 활동했던 목사였는데, 당시에 빌리 그레함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다. 1941년 찰스 템플턴은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던 분이었다. 찰스 템플턴은 진화론에 물 들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던) 찰스 템플턴은 프린스톤 신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아 보고자 했다. 찰스 템플턴은 1948년 9월에 프린스톤 신학교에 입학하여 3년 간 공부했다.

그러나 당시의 프린스톤 신학교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고등비평과 진화론을 추종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프린스톤 신학교의 주도권을 잡자, 보수 정통신학자들이 프린스톤을 떠나, 그레셤 메이첸의 주도로 새로운 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다(1929년).

드디어 찰스 템플턴은 목사직을 버리고 말았다.

댄 바커(1949-) 목사는 19년 간 복음주의 목사로 사역하던 중, 무신론자가 되어 목사직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 댄 바커 목사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성직자 프로젝트(The Clergy Project)를 리처드 도킨스, 대니얼 데넷, 린다 라스콜라와 함께 설립하여(2011.3) 운영하고 있다.

성직자 프로젝트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떠난) 전·현직 성직자들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기관이다. 무신론자가 된 목사는 자신의 신념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며,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인지부조화라는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성직자 프로젝트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전업 알선 등의 활동을 한다.

성직자 프로젝트와 같은 공식적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받는 성직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어난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이런 기관이 공식적으로 설립될지 모를 일이다.

3. 생물학적 '종(species)' 개념의 허구성과 이중 잣대

생물학계는 교배하여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같은 종'이라 정의(생물학적 종 개념)하면서도, 카멜리드(낙타·라마·라마·알파카·과나코·비쿠냐) 무리와 캐니스(늑대·개·코요테·들개·자칼) 무리에게는 이 잣대를 기만적으로 비껴간다.

1998년에 두바이의 낙타 번식 연구센터(Camel Reproduction Centre)에서 과학자들이 크기와 무게 차이가 너무 커서 자연 교배가 불가능한 수컷 단봉낙타와 암컷 라마를 인공수정으로 탄생한 것이 카마(Cama)이다. 단봉낙타와 쌍봉낙타는 상이한 환경에서 진화하였다고 하나 인공수정으로 번식력 있는 '카마(Cama)'를 낳고, 라마와 알파카, 과나코와 비쿠냐 역시 올타리를 허물면 경계 없이 섞여 기일성 후손을 피뜨린다.

카멜리드 무리가 서로 번식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낙타과에 속하는 속으로 낙타속, 라마속, 비쿠냐속을, 낙타속에 속하는 종으로 단봉낙타와 쌍봉낙타를, 라마속에 속하는 종으로 라마와 과나코를, 비쿠냐속에 속하는 종으로 알파카와 비쿠냐를 배치하여 분류표를 만든다.

개, 늑대, 코요테, 자칼 역시 염색체 수가 동일하며, 야생과 실험실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교배하며 유전자를 공유하는 단일한 생태적 연속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학계는 외형적 차이나 지리적 격리라는 자의적 기준을 끌어들여 이들을 별개의 '종(species)'으로 분류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캐니스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번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과 개속에 속하는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한다.

만약 이 논리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수천 년간 격리되어 서로 판이한 외모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인류의 각 인종 역시 서로 다른 종으로 쪼개야 마땅하다는 위험한 귀결에 이른다.

결국 생물학자들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는 자연의 실재(reality)를 반영한 과학적 진실이라기보다, 진화론적 계통수 위에 억지로 수많은 가지를 쳐내어 자신들의 분류학적 기득권과 사조를 유지하려는 지적 독단이자 도그마에 불과하다.

쌍봉낙타, 단봉낙타, 과나코, 라마, 비쿠냐, 알파카

재판의 많은 경우는 역사전쟁이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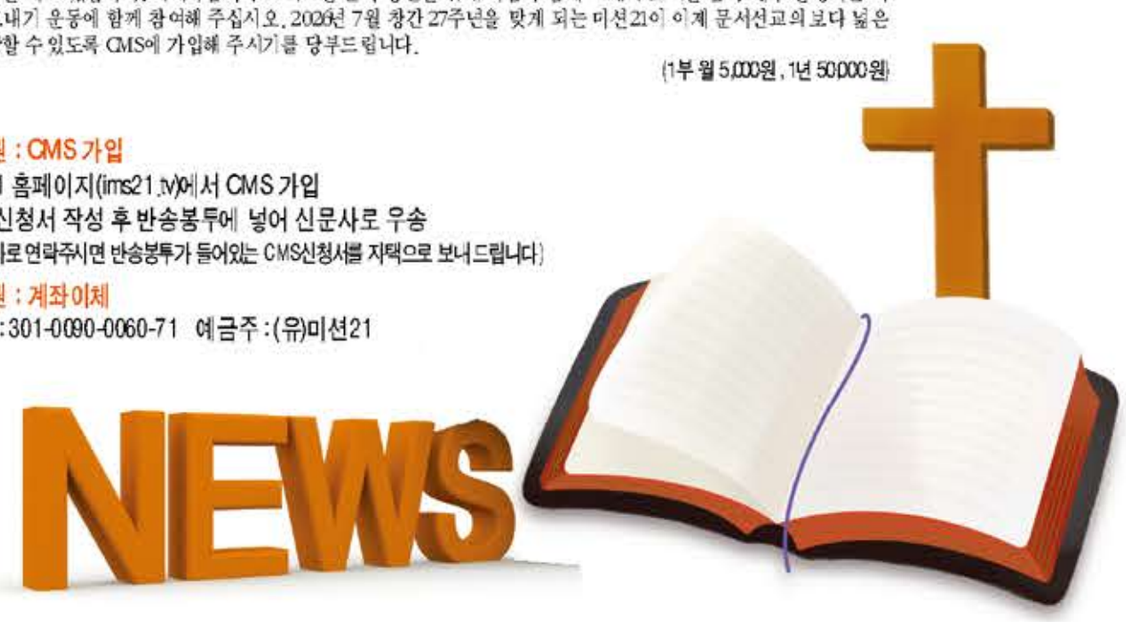
미션21 신문을 보냅시다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1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i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택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 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작성하신 후 휴대폰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 010-4802-7824 / e-mail : ph2930@nate.com

미션21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오…"
복음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신청일자 :	
계 좌 정 보	
은행명 :	
예금주 :	
지정출금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	

금액(매월)	□ 5,000원 □ 기타 ( )원 ( )부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 기타 ( )일
후원기관	□ 법인	□ 기타 ( )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 또는 서명

장통 가독교 주간신문 미션2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삼빌딩 3층)
전화 : 062)367-9109, 364-9109 / 팩스 : 062)367-9108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일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 또는 서명